

유독 화학물질 유통량 2125만톤

환경부, 2003년 자일렌 · 황산 47% 차지 ... 울산 · 전남지역 집중

환경부가 2003년 유독물 유통·취급실태를 분석한 결과 유통량은 2125만1000톤으로 2002년(1990만8000톤)보다 6.7% 늘어났다고 발표했다.

환경부에 따르면, 국내 유독물 유통량은 최근 7년 동안 연평균 8.3%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.

2003년 말 기준 유독물 영업자도 5467개 업소로 2002년 5154개에 비해 6% 증가했다.

2003년 유통된 유독물은 정부가 지정·관리하는 543종의 절반 가량인 286종이었다.

이 가운데 기초화학제품인 자일렌(Xylene)이 전체 유통량의 26%를 차지했으며 황산(21%), 벤젠(14.7%), 수산화나트륨(14.5%), 톨루엔(9%) 등이 뒤를 이었다.

제조·사용·보관·저장량 등을 합한 유독물 취급량은 5989만8000톤으로 2002년보다 4% 가량 늘었으며 대규모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있는 울산과 전남이 전체 취급량의 60% 이상을 차지했다.

환경부는 앞으로 ▷유독물 유통·취급 실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▷단순 중개자 대부분인 유독물 판매업자는 유독물영업등록 시 관리자 선임이나 자체방제계획 수립 등 의무사항을 면제하는 한편, ▷대규모 산업단지 내 유독물 지도·점검 시 국립환경연구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.

<화학저널 2004/06/11>